

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될 것인지에 답을 주신다.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한다(그 속에 절대 해답, 절대 결론, 절대 능력이 있다)  
**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사야, 예레미야, 에스겔, 다니엘이다.** 이사야서에는 이 절대 해답과 절대 결론과 절대 능력 속에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자들을 “렘넌트”라고 불렀고, 에스겔서에는 “하나님의 군대”라고 불렀다.  
 아무리 말라버린 해골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, 오직 말씀의 능력,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다.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다.  
**본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, 말씀의 능력,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들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.**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, 그 물이 온 세상을 살린다.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차고, 무릎과 허리에 차는데 그때까지는 측량을 할 수가 있었다. 나중에는 그 물이 강을 만들고, 바다로 들어가 모든 것을 살리는데(9절), 그 물의 양을 측량할 수가 없게 된다.

1.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?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(엡3:8).
  - 1) 이 복음은 모든 인생을 살리는 것이다(롬1:16-17)
  - ①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되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던 인생도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(엡2:1-5). 갈수록 세상은 끝없이 타락하고, 각종의 저주와 재난이 계속되고, 그 속에서 인생들이 무너지고 있다. 답이 없어 방황하고, 집착, 중독, 우울증, 심각한 영적 문제가 계속될 것이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산다.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다. 그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(12절)
  - ②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 없다.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, 그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(요1:1-4,14)
  - 2)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.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죽는다.
    - ①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다. 그냥 역사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다.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.
    - ② 이 성경 속에 율법도 있다.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고 온전해지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. 문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. 왜 그런가?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다(롬3:10, 5:12, 6:17).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에게 잡혀 우상과 썩어질 세상을 따라 다닐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.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?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나를 보고(롬3:20),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다(갈3:24)
    - ③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?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? 오직 그리스도이시다(요5:39, 눅24:44)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,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(롬1:4)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, 선지자,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(롬8:1-2), 그 배후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(요일3:8),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이다(요14:6). 이 그리스도를 알고, 그리스도를 영접하고,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,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(요7:38-39).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유일성이 되고,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가 된다.
2.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세가지를 찾아 누려야 한다(요15:7).
  - 1) 말씀 속에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다. 적어도 다섯 현장에 성취될 언약이 있다(나 자신, 만남, 가정, 업, 지역(나라와 시대))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, 갱신하게 하고, 미션을 주신다(다락방). 만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(팀사역), 내 가정이 치유받고 쓰임 받게 한다(미션홈). 내 업에서 증거를 얻어 전도의 문이 되게 한다(전문 사역), 지역(나라, 시대) 살릴 자로 서게 한다(지교회). 모든 것이 살아나고(9절),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고 했다(10절).
  - 2) 말씀 속에는 흐름이 있다. 본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강으로, 바다로, 온 세상으로 간다고 했다.
    - ① 살리는 흐름이다. 영적 흐름이다(요6:63).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. 간단히 말하면 창1:2부터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(요일3:8, 요14:30, 엡6:12, 계18:1-3),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것이다. 사단은 타락하게 하고, 싸우고 갈라지게 하고, 병들게 하고, 무너지게 하고, 죽게 하는 자이다. 성령은 그 반대이다. 타락한 자를 회개하게 하고, 하나 되게 하고, 병든 자를 치유하고,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고, 죽은 자를 살려 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.
    - ② 그 살리는 흐름이 전도의 흐름이다.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요 살리는 일이었다(창6:14-20). 가나안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살려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는 언약이었다(창12:1-3). 세 절기와 성막, 성전이 이방인까지 살리는 언약이었다(사56:7). 왜 노예로, 포로로 보냈는가? 안 가니까 가서 살리라고 보낸 것이다(사54:3). 나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. 하나님의 말씀과 흐름이 맞는 것이다.
    - ③ 응답의 흐름이다. 내가 모든 문제에서 응답받고 살면 전도와 선교가 쉬워지는 것이다. 하나님이 내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. 흐름을 정확히 타야 응답을 받는다(시간표) 그 응답의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내고, 그 흐름을 타는 비밀이 강단의 말씀이다. 구약 시대에는 강단의 말씀이라는 것이 없었다. 그리스도도 오시고, 행2장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, 그것이 강단의 시작이다. 그 사도들의 말씀을 붙잡고, 포럼하고, 기도하는데 모든 문이 열린 것이다(행2:42, 살전2:13)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를 살리고, 세상을 살리는 환상이 이 축복을 의미한 것이다. 강단의 흐름이 중요하다.
  - 3) 말씀을 붙잡고, 말씀을 따라가는 데, 여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(언약의 여정, 전도자의 여정, 렘넌트의 여정). 하나님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.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정이다. 노예로 가도, 포로로 끌려가도, 온 땅에 재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.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(묵상)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성취하시라는 것이다(시103:20). 바울이 행1:8의 “땀끝의 언약”을 붙잡고, “로마도 보아야 하리라”는 꿈과 비전을 가졌다(CVDIP).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킨다. 감옥에서는 “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”고 하시고(행23:11), 풍랑을 만났을 때는 “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” 하신다(행27:24)

**결론**-우리는 나와 세상을 살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이다.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.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. 말씀의 흐름을 타라.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.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